

무주 보건의료원 진료 만족도 높인다

1층 편의시설 개선 공사 마무리... 보건의료원장 취임, 진료과목 신설

무주군은 보건의료원 1층 편의시설 개선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8일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주민들이 쾌적하고 밝은 분위기의 의료원에서 치료는 물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했으며 8월에 응급실과 진료실, 화장실의 환경 개선과 자동출입문, 순환버스 대기소 설치 등을 끝내고 주민들에게 개방했다. 주민들은 "의사선생님과 직원분들의 관심 어린 응대에 몸이 불편하단 것도 있는 경우가 있다"라며 "서비스도 그렇고 시설 변화까지 여러 가지로 보건의료원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좋다"라고 전했다.

2002년에 문을 연 무주보건의료원은 무주군내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무주군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과 치료, 장애 등을 위한 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보건기관 평균 이용률 37.9%보다 21.6%p가 높은 59.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치매안심센터 개원을 시작으로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근절, △의료원 내 환자 전용 주차장(48면)을 확보, △진료 및 상담 대기실(1, 2, 3, 4층) 도어 비치, △진료



무주군은 보건의료원 1층 편의시설 개선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실 입구 의료진 현황판 및 명패 부착, △원무과를 비롯한 치매안심센터, 건강증진센터 직원 유니폼 착용 등의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김미경 보건행정과장은 "무주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고객만족도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보건의료원 조수현 원장을 비롯한 공중보건의사와 직원들에 대한 칭찬글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군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무주군보건의료원에

서도 큰 만족과 신뢰를 드리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는 외과 전문의 조수현 원장의 취임과 함께 정형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과목이 신설돼 4명의 전문의를 비롯한 총 21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외래 진료를 보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은 CT와 임상병리장비 등 의료장비도 최신 기종으로 교체했으며 올해는 유방촬영기 등 2종의 장비를 추가로 교체할 예정이다. 앞으로 진료 폭 확장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치유마을 조성 '착착'

아토피 환아 가족 주거용 친환경 목조주택 12월 준공 예정

진안군은 진안고원 치유마을 조성에 힘을 쏟고 있어 아토피 환아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시설 확보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진안고원 치유마을 조성사업은 아토피 안심학교 인근 주택 확보의 어려움과 아토피 전입 가정의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2017년 진안군과 K-water(용담법관리단)의 지원 협약으로 총사업비 43억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다. 진안고원 치유마을은 정면면 봉화리 1271-1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단독주택(다가구) 6동 127가구 69.8㎡(21평형)으로 진행 중이다.

군은 지난 7월 진안고원 치유마을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10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사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치유마을 입주대상은 아토피 환아가 포함된 가구로 조립초등학교나 부귀중학교 등 아토피 안심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예정인 진안군 전입가족이다.

김금주 보건소장은 "진안고원 치유마을이 조성되면 아토피안심학교로 지정된 조립초와 부귀중학교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고 아토피 환아의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제4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관광홍보

장수군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장수군의 다양한 관광지와 특산물, 축제 등을 홍보했다.

국내의 문화, 의료, 뷰티 등 관광관련 콘텐츠를 한자리에 모은 국제

관광 네트워크의 장인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는 500여개의 업체가 참가하고 40,000여명 이상이 관람하는 대규모 관광박람회로, 이번 행사에서 장수군은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관람객들에게 '승마1번지 장수'의 주요 관광명소와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열리는 '제13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집중 홍보하였다.

군은 이번 행사에서 장수 농·특산물(사과즙) 시식행사, SNS 이벤트, 퀴즈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관광객의 눈길을 끌었으며, 대표 관광지인 논개사당, 뜰봉샘 생태관광지, 대곡관광지, 승마레저파크 등의 관광코스를 전 북투어패스카드와 연계하여 소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진안군,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 추도식 거행

제2회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추도식이 최근 신갑수 진안군의회 의장, 이한기 전북도의원, 군의원, 유족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읍 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념탑에서 거행됐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희생당한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진안군지부(지부장 문종윤) 주최로 열린 이날 추도식은 추도사, 헌사,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억울하

게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한편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백색국가 제의 결정 등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다.

문종윤 지부장은 "일본은 자신들의 야욕으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과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군민체육대회

올해 13회째를 맞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장수군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토마토 속 황금반지를 찾아라!'와 '레드 콘포 미로공원', '레드푸드 릴레이 경기'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으로 우리군 Red Color Food와 스포츠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특히 축제 첫날에는 장수군이 후원하고 장수군 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군민 모두가 축제에 함께 참여하고, 군민이 하나가 되는 축제, 풍요로운 미래의 땅 합천 장수를 지향하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우리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축제 첫날 추진하는 군민 체육대회는 군민 모두가 화합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진안천 하천시설물 정비

진안군은 진안천 주변에 설치된 수변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과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안읍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진안천은 천변 데크시설, 안전로프, 난간 등이 설치되어 보행환경 개선과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시설물 설치 후 1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가 진행되어 데크 일부가 파손되거나 난간이 주민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어 진안군은 노후 하천시설물 보수를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4월부터 하천시설물 보수에 착수하여 주민휴식 공간으로 사용되는 등선교 주변 정비를 시작했다. 또 데크 시설 및 난간 보수, 보행 데크 내구연함을 증가시키는 오일 스테인 공사 등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정흥기 안전재난과장은 "진안천 주변 하천시설물의 깨끗한 정비로 안전한 친수 공간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구독 · 광고문의 288-9700